

유교가치관 척도 개발연구

심 경 섭^{1)*} 이누미야 요시유키²⁾ 윤 상 연¹⁾
서 신 화¹⁾ 장 양¹⁾ 한 성 열¹⁾

¹⁾고려대학교

²⁾서정대학교

본 연구는 전통 유교 이론을 토대로 하여, 한국인의 사고와 행동에 유교가치관이 어떤 구조로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척도의 개발 과정에서 첫째,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서 문헌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유교가치 체계를 3가지 범주(세계관, 인간관, 사회관)로 분류하였다. 둘째,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을 참고하고 연구자들이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유교적 사고와 행동들로 77개의 문항을 제작하여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셋째, 예비연구 결과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하고 제거하는 작업을 거쳐 54개의 유교가치관 예비문항을 구성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서 10대부터 60대까지의 패널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요인분석한 결과, 세 개의 이론적 범주 중 '세계관'(6문항)과 '인간관'(9문항)이 각각 한 개의 요인으로, 그리고 '사회관'은 부자관(3문항), 장유관(4문항), 봉우관(4문항), 부부관(3문항)의 4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요인별 평균점수는 장유관, 봉우관, 인간관, 부자관, 세계관, 부부관의 순서였다. 그리고 성별 및 연령대별로 유교가치관의 수준을 비교해본 결과, 성별에서는 유교가치관 전체, 세계관과 부부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연령대에서는 유교가치관 전체를 비롯하여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교 가치가 여전히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존속하고 있지만, 요인 별로 그 수준이 다르고, 특히 성별이나 연령 등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한국인의 서구화와 한국사회의 세대 간 의식의 차이를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논의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의의와 제한점을 바탕으로 추후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유교, 유교가치관, 세계관, 인간관, 사회관, 척도 개발

* 교신저자 : 심경섭,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구법학관 407호
Tel: 02-3290-2064, E-mail: counsel10@korea.ac.kr

중국에 공자가 다시 돌아왔다. 지난 2001년 중국 인민대학에서는 3.5미터의 청동 공자상이 세워졌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는 공자의 3000명 제자들이 논어를 외우며 등장하는 장관이 연출되었다. 2010년에는 350억 원을 들인, 영화 ‘공자’가 만들어 졌으며, 2011년 1월에는 중국 현대사의 상징인 천안문 광장에 9.5미터 공자상이 세워졌다.

이에 앞서 한국에서는 1990년대에 이미 유교(Confucianism)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면서, 유교문화의 부활에 대한 찬반 논의가 뜨거웠다. 유교가 과거 한국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전통 가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계승과 폐기를 주장하는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하였다. 한편에서는 가치관 혼란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교의 강화를 주장하였고(이언호, 1999; 최병철, 1999; 함재봉, 2000), 다른 한편에서는 유교가 서구화되어가는 한국사회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구시대의 유물이므로, 이제는 버려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김경일, 2001). 이처럼 유교가 다시금 재조명을 받게 된 데는 다양한 정치·사회적인 배경이 있겠지만, 유교에 대한 논쟁은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유교가치관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오랜 역사 속에서 유교는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원리를 담당해 왔다. 유교는 한국인의 행동 특성(behavioral traits)과 사고방식(way of thinking)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유교가치관(Confucian values)을 형성하였다. 또한 이것은 효도(filial duty)로 대표되는 생활 규범과 상장례(burial ritual), 제례(ancestral ritual) 등 현실적인 유교적 관습(Confucian practices)을 구성하였다. 특히 조선 시대 유교는 종교와 학문으로서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

다. 제례와 같은 조상 숭배 측면에서는 종교적인 기능을, 생활 규범이나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는 학문적 교양의 토대가 되었다(강재언, 2001; 금장태, 1982, 2005, 2007; 최준식, 2000; Kitagawa, 1978; Tu, 1985; Yao, 2000). 그러므로 조선시대 사람에게 ‘효제충신’(孝悌忠信)을 강조하는 유교는 흔들릴 수 없는 종교적 신앙이었고, 사서삼경(四書三經)으로 대표되는 유교 경전은 가치관의 원천으로 공유되었다(김태길, 2001; 김충열, 2009; 유승국, 1976, 1988; 윤사순, 1997, 2006; 현상윤, 1949, 1960, 2008).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유교가치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첫째, 조선시대 이후 지금까지 유교가치관은 개인적인 수양에서 출발하여 가정 및 사회생활의 기준이 되었다(금장태, 2005; 조궁호, 2007; 한덕웅, 2001). 둘째, 유교가치관은 여전히 한국인의 마음과 행동의 내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고순덕, 1991; 차재호, 1992, 1994; 한덕웅, 2001, 2002, 2004a), 지금도 가정 및 사회 생활과정에서 경험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체적 현실이다(고병익, 1996; 조궁호, 2007; 한덕웅, 1994, 2003; 함재봉, 2000). 이러한 관점은 서구 심리학계의 연구들을 통해서도 지지되고 있다. 그들은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권을 유교적 역동성(Confucian Dynamism)이 매우 큰 나라로 분류하면서(Hofstede & Bond, 1991), 유교가 동아시아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관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Bond, 2008; Hofstede, 1991; Nisbett, 2003).

이러한 현실적 토대 하에서 한국형 유교가치관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유교가치관이 인지와 의사결정, 인간관계와 사회적 행동 선택 등

한국인의 심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서, 유교가치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한국인의 마음과 행동에 내재된 유교가치관이 어떤 구조와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성별이나 연령대, 지역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 유교가치관이 집단별로 어떻게 내면화되어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교적 신앙으로서의 유교뿐만 아니라 생활 규범과 윤리의 기초가 되었던 유교를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유교를 종교로만 한정 짓는다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연구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종교로서 유교는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으므로, 자칫 연구의 범위가 매우 협소해질 수 있다. 하지만 종교가 없다고 생각하는 한국인들 중 많은 수가 실제로는 제사나 조상숭배 등 유교적 관습을 실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04; Koh, 1996), 한국에서 유교는 종교를 떠나 사회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일반인 전체를 그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기존의 유교가치관 연구

한국심리학계에서 동양 및 한국의 문화전통에 관심을 둔 소위 ‘자생적 심리학(최상진, 2011)’에 대한 연구는 한국 심리학회의 출발과 함께 시작되었다. 유교와 관련된 선구적인 연구로는 첫째, 유교문화권의 심리적 특성을 규명한 연구, 둘째, 유학사상에 대한 심리학적 재해석 작업을 추진한 연구, 셋째,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가치관을 추출하고 그 변화 양상을 분석한 연구 등 세 가지 방향으

로 전개되었다.

우선, 심리적 특성을 찾으려는 선구적인 연구로 동서양의 사회적 감정에 대한 비교(정양은, 1970, 1976), 성숙인격과 퇴계의 경사상(김성태, 1976, 1978; 임능빈, 1984, 1995), 한국인의 고유한 정서경험으로서 4단 7정(한덕웅, 1996, 1997, 2001)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심리학적 재해석 작업은 중용사상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이수원, 1997), 맹자와 순자 사상에 근거한 유학심리학의 모색(조궁호, 1990, 1997), 퇴계의 경사상에 기초한 한국유학심리학 구성(한덕웅, 1994)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끝으로, 유교가치관에 대한 연구로는 ‘소학’에 등장하는 덕목을 중심으로 유교가치관을 살펴본 연구(김경동, 1964, 2004)와 한국의 전통적 가족주의를 연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유교가치관을 조사한 연구(신수진, 1998, 2002; 한규석, 신수진, 1999)가 있다. 그리고 한국인의 가치관과 세대차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추적해가는 연구(나은영, 차재호, 1999; 나은영, 차유리, 2010)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유교에 관한 한국심리학계의 선구적인 연구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이것은 서구중심주의의 해체 내지는 극복을 시도한 문화심리학적 연구이며(김정운, 한성열, 1998), 다음으로, 한국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근거로 한국적 심리학을 정립해 가려는 작업으로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최상진, 한규석, 1998; 한규석, 2002). 이와 관련하여 한덕웅(1997)은 유교에 관한 선행 연구가 첫째, ‘개인 과정이나 대인 과정을 설명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준에서 지향해야 할 사회 공동체의 이념과 행동 규범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이론'을 탐구한 것이며, 둘째, '객체화된 심리학 이론이나 지식을 추구하는 서양 사회심리학의 한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심리학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평가는 위의 연구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나침반이 된다고 하겠다.

한편, 동서양의 가치에 관한 조사로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IBM에 근무하는 직원들 간의 국가 가치체계를 비교 연구한 Hofstede (1980, 199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유교가치관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Michael Bond(1987)가 개발한 중국적 가치조사(Chinese Value Survey, CVS)이다. 그는 설문과 문헌연구 방법을 통하여 중국의 유교가치관을 망라하는 40개의 가치항목(value categories)들을 선정하였다. 연구과정에서 그는 우선, 홍콩과 대만 출신의 사회과학자들에게 중국인에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를 10개 이상씩 적도록 한 다음 이를 취합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이 목록에서 중복되는 것은 삭제하고, 직접 중국의 학자들이 저술한 책에서 몇 개의 가치를 추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진행된 Hofstede나 Bond의 연구는 많은 국가들에서 반복적으로 수행되면서 동서양 사람들의 문화적 차이를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중국적 가치조사에서는 동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유교가치관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인들의 일상생활에 유교가치관이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기존 유교 연구의 한계점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유교가치관의 종류나 내용

에 대해 설명하고 이론화하는 연구보다, 이것을 실증적이며 경험적 사실로 증명해가는 연구로 연결시켜야 심리학적으로 보다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김의철, 2000, 2006; 조궁호, 2007; 한덕웅, 2001, 2004a). 따라서, 유교가 현재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경험적인 연구를 통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가치가 지속적으로 통용되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Bell, 2000)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유교가치관은 오늘날 보편화되어 있는 서구적 가치관으로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전통적인 사상들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대인관계 태도나 결혼, 제사와 같은 생활관습 등의 형태로 한국인의 생활에 강하게 밀착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유교가치를 부정하고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해서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이러한 배경 하에 한국인의 인지 및 행동 방식과 한국문화의 어떤 요소가 유교적 속성에 해당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은 실증적 연구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된다고 하겠다.

유교의 세계관, 인간관, 사회관

인간은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성장하며 주변 사람들의 태도, 신념, 가치관을 전수받는다. 이러한 문화화(enculturation)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은 자신이 듣고 배운 세계의 본질을 진리로 받아들여 하나의 세계관(a world view)을 형성하게 된다(Langness, 1982). 그러므로 세계관은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으로, 한 개인의 성격(personality)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문화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유교는 동아시아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한국인들이 진리로 받아들여 체계화한 세계관이다(현상윤, 1949, 1960, 2008). 본 논문에서는 천명론(天命論)과 이기론(理氣論), 조상숭배를 유교적 세계관의 구성개념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천명론’이란 단순히 하늘(天)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자연적인 법칙(도리, 道理)이 있다는 동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세계관이다. 이것을 기초로 하늘로 상징되는 자연과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의 법칙 아래 존재한다는 ‘천인합일’(天人合一, harmony between human and nature) 사상과 하늘로부터 나온 인간의 성품은 본래 선하다는 ‘성선설’이 도출된다.

다음으로 ‘이기론’(理氣論)이란 자연과 인간이 모두 이(理)와 기(氣)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겨난다는 관점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사람들은 이러한 세계관에 기초하여 철학, 과학, 의학을 발전시켜나갔다. 이들은 자연의 근원에 해당하는 본질적인 이(理)를 ‘태극(太極)’이라 부르며, 그 하위개념인 음양오행의 작용에 따라 만물이 서로 다른 수준으로 생성되었다는 차등적인 논리를 만들었다(한국사상사 연구회, 2006). 이것이 바로 세상 만물이 하나의 이를 부여받았으나 서로 다른 기의 성분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이일분수’(理一分殊)와 ‘상하귀천’의 가치관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끝으로, 조상의 영혼이 자손을 보호한다는 조상숭배 의식과 이 의식을 체계적으로 형식화한 제사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현실적인 관습(practices)은 모두 유교적 세계관의 뿌리를 형성하여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인간관 역시 이와 유사하다. 서구의 사회문화적 토양(socio-cultural background)에서 성장한 사람이라면 보편적 이성(reason)과 합리주의

(rationalism)에 대한 굳은 신념을 기초로 독립적인 자기 개념(independent self-concept)을 구성하게 된다. 반면, 동양의 유교문화권에서 성장한 사람이라면 자연의 법칙(도리, 道理)에 순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상호협조적인 자기 개념(interdependent self-concept)을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처럼 상호협조적이고 관계중심적인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hips)를 중시하는 문화적 풍토의 바탕에는 자신의 언행을 먼저 돌아보는 ‘인격수양’과 ‘인의예지’를 중시하는 인간관(perspective on human)이 깔려있다고 하겠다.

또한, 개인을 넘어서서 두 사람 이상이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사회생활 방식에서도 서구에서는 독립적인 자기 개념에 근거한 개인주의적 특성을,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집단주의적 특성을 보인다(이누미야, 2005; 조궁호, 2007; 한규석, 신수진, 1999: Markus & Kitayama, 1991; Nisbett, 2003). 즉, 사회관(perspective on social)의 측면에서 동아시아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인간관계의 기본으로 친밀함(親), 정의로움(義), 역할 구분(別), 위계질서(序), 신뢰(信) 등 ‘오륜’(五倫)을 강조한다(김장태, 2007; 조궁호, 2007).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서로 모르는 타인과의 윤리보다는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친구관계, 어른-아이 관계, 임금-신하관계 등 가깝고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 윤리가 우선시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서구 사회의 보편적 이성과 합리주의적 관점의 기저에는 계몽사상이 깔려있다(조궁호, 2003). 이와는 달리, 동아시아 사회에는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자연적인 법칙이 있다는 유교 사상이 그 아래에 놓여 있다(Choi & Han, 2000; Hofstede & Bond, 1991). 이처럼

유교 사상은 동아시아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에 내재되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가치관 및 대인관계 형성 과정, 그리고 개인적인 혹은 집단적인 의사결정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방 법

동아시아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교가치관을 측정하는 척도의 개발을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연구와 문헌분석을 통해 유교가치관을 선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두 번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설문조사는 본연구의 예비연구로서 그 결과를 토대로 2차 본연구를 진행하였다.

유교가치관 선정

본 연구에서는 유교가치관의 범주를 크게 세계관, 인간관, 사회관으로 정하였다. 대표적 인 유교경전인 사서(四書, The Four Books)에서 주요 개념들을 추출한 다음, 이러한 개념들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범주에 적합한지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유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검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유교가치관을 표 1과 같이 선정하였다.

세계관에서는 천명론과 이기론, 조상숭배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고 6개의 유교가치를 선정하였다. 첫째, 천명론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하나의 법칙아래 놓여 있다는 천인합일과 하늘로부터 나온 인간의 성품은 본래 선하다는 성선설로 구성되었다. 둘째, 이기론은

유교 사상의 논리를 다소 쉽게 풀어서 문항을 구성하였다. 본래 유교적 세계관에 의하면 천지만물의 존재 근거인 이(理)에서 나온 모든 사물과 인간의 특성이 다양한 것은 서로 다른 기질(氣)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금장태, 2005, 2007).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의 성격이 다른 것은 하늘로부터 각기 다른 기운을 받았다는 이일분수(理一分殊) 개념과 사람은 각자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상하귀천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조상숭배의 측면에서는 내세의 조상과 현세의 자손들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조상들이 자손을 보살핀다는 내세관과 조상에 대한 제사를 중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인간관은 인격수양과 인의예지의 두 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고, 9개의 유교가치를 선정하였다. 첫째, 인격수양의 측면에서는 겸손(謙遜),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여 덕을 쌓은 다음 세상에 나아가 타인을 교화한다는 의미의 수기치인(修己治人),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잘못을 반성해본다는 의미의 반구저기(反求諸己), 자기 수양을 다한 후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의미의 충서(忠恕), 자신의 처지를 미루어 남을 헤아린다는 공감 정서를 강조하는 하는 혈구지도(絜矩之道) 등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인의예지는 의미 그대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측은지심, 惻隱之心)과 부끄러움과 미움을 분명히 구분하는 마음(수오지심, 羞惡之心), 예의와 절도를 중시하는 마음(사양지심, 辭讓之心),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시비지심, 是非之心) 등으로 구성되었다.

끝으로, 대인관계에 해당하는 사회관은 오류를 기초로 하여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양에서 인

표 1. 유교가치관 이론적 구성개념과 하위요인

| 개념(3) | 하위요인(10) | 유교가치(20) | |
|------------------------|------------|--------------------------|------------|
| 세계관(世界觀) | 천명론(天命論) | 천인합일(天人合一) | |
| | | 성선설(性善說) | |
| | 이기론(理氣論) | 이일분수(理一分殊) | |
| | | 상하귀천(上下貴賤) | |
| 인간관(人間觀) | 조상숭배(祖上崇拜) | 제사(祭祀) | |
| | 인격수양(人格修養) | 내세관(來世觀) | |
| | | 겸손(謙遜) | |
| | | 수기치인(修己治人) | |
| | 인의예지(仁義禮智) | 반구저기(反求諸己) ¹⁾ | |
| | | 충서(忠恕) | |
| | | 혈구지도(絜矩之道) ²⁾ | |
| | | 측은지심(惻隱之心) | |
| | | 수오지심(羞惡之心) | |
| | 사회관(社會觀) | 오륜(五倫) | 사양지심(辭讓之心) |
| 시비지심(是非之心) | | | |
| 부자관(父子觀) | | | 부자유친(父子有親) |
| 부부관(夫婦觀) | | | 부부유별(夫婦有別) |
| 붕우관(朋友觀) | | | 붕우유신(朋友有信) |
| 장유관(長幼觀) | | | 장유유서(長幼有序) |
| 군신관(君臣觀) ³⁾ | 군신유의(君臣有義) | | |

- 1) ‘잘못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 라는 뜻이다.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탓 하지 않고, 잘못된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 고쳐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맹자》의 〈이루 상〉 편에도 “행하여도 얻지 못하거든 자기 자신에게서 잘못을 구할 것이니(行有不得者皆反求諸己), 자신의 몸이 바르면 천하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반구저기와 유사한 표현으로 《논어》의 〈위령공〉 편에 “군자는 허물을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허물을 남에게서 구한다(君子求諸己, 小人求諸人)”라는 구절이 있다.
- 2) 혈구지도는 ‘곱자를 가지고 재는 방법’이라는 뜻이다. 곱자는 나무나 쇠를 이용하여 90도 각도로 만든 ‘ㄱ’자 모양의 자를 말한다. 여기서 유래하여 혈구지도는 목수들이 집을 지을 때 곱자를 가지고 정확한 치수를 재듯이 남의 처지를 헤아리는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된다. 《대학》의 마지막 장인 제10장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된다. “이른바 천하를 화평하게 만드는 일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데 달려 있다.” 윗사람이 노인을 노인으로 대접하면 백성들 사이에 효가 흥할 것이고, 윗사람이 연장자를 연장자로 대접하면 백성들이 이를 따라 할 것이며, 윗사람이 고아를 공홀히 여기면 백성들이 배반하지 않을 것이니, 이런 까닭에 군자는 혈구지도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 3) 군신관(君臣觀)은 원래 임금과 신하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이지만, 오늘날의 실상에 안 맞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상하관계, 즉 직장에서의 상사-부하와 같이 수직적인 서열관계로 보고 문항을 제작하였다.

간이란 상호협조적인 자기관을 중심으로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의 의미가 규정되고 가정이나 국가집단 안에서의 역할이 부여되는 관계적 존재로서(김충렬, 1984, 1991; Nisbett, 2003), 사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조화로운 인간관계(harmonious relationships)가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관은 오류에 해당하는 5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부자유친은 부모와 자식관계로, 부부유별은 부부간의 관계로, 장유유서는 어른과 아이 간의 관계로, 봉우유신은 친구간의 관계로, 군신유의는 시대 변화를 고려하여 사회적인 상하관계로 설정하여 대인관계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예비 연구

유교가치관 척도 개발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설문조사는 유교가치관 척도 개발의 예비연구로서 유교에

관한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을 토대로 위와 같이 3개의 개념과 10개의 하위요인에서 선정된 20개의 유교가치로 77개 문항을 제작하였다. 예비연구에서는 3개의 구성개념인 세계관, 인간관, 사회관을 독립된 척도로 하여 세계관 14 문항, 인간관 27문항, 사회관 36문항의 총 77개의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고, 전문가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각 문항은 유교적인 가치관을 묻는 질문에 대해 자신의 성향과 일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Likert 척도에 의해 측정하였다. 1차 설문조사는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0대에서 60대까지의 남녀 총 250명에게 실시하였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13명을 제외한 237명(남 73명, 여 164명; 평균연령 37.8세)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유교가치관 척도의 예비문항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준거를 사용하였다. 첫째, 각 척도 내에서 문항-총점 상관이 .30 이상인 문

표 2. 유교가치관 척도 예비문항 선정

| 개념 | 하위요인 | 문항수 | 삭제문항 | 추가문항 | 선정문항 |
|-----|------------|-----|------|------|------|
| 세계관 | 천명론(天命論) | 6 | 2 | 1 | 5 |
| | 이기론(理氣論) | 4 | 1 | - | 3 |
| | 조상숭배(祖上崇拜) | 4 | 2 | - | 2 |
| 인간관 | 인격수양(人格修養) | 14 | 7 | 2 | 9 |
| | 인의예지(仁義禮智) | 13 | 5 | 2 | 10 |
| 사회관 | 부자관(父子觀) | 8 | 4 | 1 | 5 |
| | 부부관(夫婦觀) | 6 | 2 | - | 4 |
| | 봉우관(朋友觀) | 5 | - | - | 5 |
| | 장유관(長幼觀) | 12 | 5 | - | 7 |
| | 군신관(君臣觀) | 5 | 2 | 1 | 4 |
| 계 | | 77 | 30 | 7 | 54 |

표 3. 유교가치관 척도의 예비 문항

| 개념 | 문항내용 |
|-----|--|
| 세계관 | w1. 간편하게라도 조상에 대한 제사는 계속 지내야 한다. |
| | w2. 하늘아래, 인간과 자연의 모든 것이 한 법칙 아래 놓여 있다. |
| | w3.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성품은 본래 선한 것이다. |
| | w4. 나는 자연의 이치에 맞게 살려고 노력한다. |
| | w5. 우주 만물의 근원인 '태극(太極)'이 음양(陰陽)을 낳고 음양이 결합하여 오행(五行)을 낳으며 오행의 작용에 따라 만물이 생성된다고 믿는다. |
| | w6. 나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내 분수에 맞게 살려고 한다. |
| | w7.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도리가 있다. |
| | w8. 사람의 성격이 다른 것은 하늘로부터 각기 다른 기운을 받았기 때문이다. |
| | w9. 나는 돌아가신 조상들의 영혼이 자손들을 내내 보살핀다고 믿는다. |
| | w10. 이 세상 모든 생명은 하늘로부터 정기(精氣)를 받고 땅으로부터 형체를 받아 하나의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다. |
| 인간관 | h1.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
| | h2. 나는 불우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곤 한다. |
| | h3. 사람이라면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
| | h4.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갖추어야 한다. |
| | h5. 자신을 올바르게 수양하고 가정을 잘 꾸리는 것이 원만한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
| | h6.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려는 배려를 많이 하는 편이다. |
| | h7.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언제나 신념에 따라 행동한다. |
| | h8. 사람이라면 자기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
| | h9. 나에게 중요한 업무가 맡겨졌더라도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추천한다. |
| | h10.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한다. |
| | h11. 나는 한번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한다. |
| | h12. 나는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는지를 살피곤 한다. |
| | h13. 자신이나 남에게 부끄러울 바가 없다면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아야 한다. |
| | h14. 나는 성공하기 전에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
| | h15.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의바르고 깃듯하게 행동한다. |
| | h16. 나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리는 경향이 강하다. |
| | h17. 사람이라면 겸손하게 남에게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
| | h18. 개인의 사적인 욕망을 버리고 인간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
| | h19. 사람이라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
| 사회관 | s1. 나는 어른을 마주칠 때 먼저 인사를 한다. |
| | s2.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 끝까지 믿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 |
| | s3. 가사와 자녀교육은 여자의 몫이다. |
| | s4. 뒷사람이 옳지 못한 결정을 할 때 나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다. |
| | s5.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
| | s6. 나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매사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
| | s7. 효도가 최고의 덕목이므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한다. |
| | s8. 부부 사이에는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
| | s9.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서로 양보하고 상호간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 |
| | s10. 어른을 공경하고 나이에 맞게 대접해 드려야 한다. |
| | s11.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노약자석이 아니어도 나이 드신 어른께는 자리를 양보해 드린다. |
| | s12. 나는 어른 앞에서 말을 할 때 조심스럽게 공손한 말씨를 사용한다. |
| | s13.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 | s14. 가정의 중요한 사안은 가장이 결정해야 한다. |
| | s15. 나는 친구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 | s16. 나는 친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반드시 도와준다. |
| | s17. 어른에게는 예의를 갖추어 행동해야 한다. |
| | s18. 나는 아랫사람(부하, 후배 등)을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한다. |
| | s19. 남자는 바깥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것이 좋다. |
| | s20. 나는 항상 어른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한다. |
| | s21. 내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불효이다. |
| | s22.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사랑과 공경이 있어야 한다. |
| | s23. 나는 친구를 항상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하려 한다. |
| | s24.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정의롭고 모범적이어야 한다. |
| | s25. 나는 매사에 나 자신보다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고 산다. |

항을 선정하였다. 둘째, 각 척도 문항들에 대한 주성분분석 결과 제1요인에 .40이상의 부하량을 보인 문항을 선정하였다. 셋째, 각 척도 문항에 대한 주축분석(Principal axis analysis)의 사각회전(Direct Oblimin)을 실시한 결과 이론적으로 예상한 요인에 해당되면서 .40 이상의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을 보인 문항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추려낸 문항을 유교가치관 구성개념의 내용타당도를 고려하여 연구자들의 논의를 통해 일부 문항을 수정(예: ‘나는 전통적인 방식에 따르지 않더라도 제사는 계속 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를 ‘간편하게라도 조상에 대한 제사는 계속 지내야 한다’로 수정)하거나, 동일한 가치관을 재는 유사한 문항을 삭제하고 구성 개념의 측정도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문항을 추가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표 2와 같이 54개의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표 3 참조).

본연구

유교가치관 척도 개발을 위해 실시한 2차 설문조사는 유교가치관 척도 개발의 본연구로서 유교가치관 척도 개발을 위해 구성된 54개 예비문항을 온라인 리서치 기관(엠브레인: www.embrain.com)에 의뢰하여 인터넷 설문을 통해 수집되었다. 설문조사는 리서치 기관에 인터넷 패널로 등록된 전국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약 1주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10대부터 60대까지 총 382명의 응답자 중에 부분적으로 응답하거나 무선적 반응경향이 의심되는 자료를 제외하고, 남녀 비율을 동일하게 각 세대 별로 50명씩 모집하는 조건으로 총 300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적으로 약 15분 정도였으

며, 조사대상자는 남자 150명(50%), 여자 150명(50%)이었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39.5세($SD = 16.1$)였다.

측정도구

예비연구를 통해 선정된 54개의 유교가치관 문항과 성별, 연령, 출신지역 등의 인구사회학적 정보를 묻는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질문에 대해 자신의 성향과 일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Likert 척도에 의해 측정하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2.0을 사용하여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기초통계분석에 이어 상관 분석, 평균 차이분석(t-test, ANOVA)을 실시하였다.

결 과

유교가치관 척도의 구성

유교가치관 척도의 최종문항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준거는 예비문항의 선정방법과 동일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척도 내에서 문항-총점 상관이 .30 이상인 문항을 선정하였다. 둘째, 각 척도 문항들에 대한 주성분분석 결과 제1요인에 .40이상의 부하량을 보인 문항을 선정하였다. 셋째, 전체 문항에 대한 주축분석(Principal axis analysis)의 사각회전(Direct Oblimin)을 실시한 결과 이론적으로

표 4. 유교가치관 척도의 구조계수행렬

| 구성개념 | 문항번호 | 요인 1 (인간관) | 요인 2 (부부관) | 요인 3 (장유관) | 요인 4 (세계관) | 요인 5 (부자관) | 요인 6 (붕우관) |
|------------------------------|------------------|---------------|---------------|---------------|---------------|---------------|---------------|
| 인간관 | h6 | .70 | | | | | |
| | h10 | .70 | | | | | |
| | h12 | .68 | | | | | |
| | h14 | .68 | | | | | |
| | h15 | .61 | | -.45 | | -.41 | |
| | h3 | .58 | | -.46 | | | .44 |
| | h4 | .57 | | -.46 | | | |
| | h18 | .52 | | | | | .45 |
| 부부관 | h7 | .48 | | | | | |
| | s19 | | .86 | | | | |
| | s3 | | .70 | | | | |
| 장유관 | s14 | | .56 | | | | |
| | s17 | | | -.89 | | | |
| | s10 | | | -.66 | | | |
| 세계관 | s9 | | | -.58 | | | |
| | w8 | | | | -.62 | | |
| | w9 | | | | -.61 | | |
| | w2 | | | | -.58 | | |
| | w3 | | | | -.57 | | |
| | w1 | | | | -.55 | | |
| 부자관 | w6 | | | | -.51 | | |
| | s6 | | | | | -.79 | |
| | s7 | | | | | -.75 | |
| 붕우관 | s25 | | | | | -.67 | |
| | s13 | | | -.49 | | | .71 |
| | s15 | .45 | | | | | .63 |
| 붕우관 | s2 | | | | | | .59 |
| | 고유치(eigen value) | 7.40 | 2.70 | 1.65 | 1.64 | 1.39 | 1.10 |
| | 설명변량(%) | 27.38 | 10.00 | 6.11 | 6.05 | 5.13 | 4.04 |
|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 .85 | .74 | .77 | .74 | .79 | .72 | |
| 요인평균 (표준편차) | 3.95 (.50) | 2.55 (.87) | 4.36 (.53) | 3.17 (.71) | 3.78 (.71) | 4.23 (.57) | |

주. 구조 계수 .40 이상인 것만 제시하였음.

표 5. 유교가치관 척도의 구성개념 및 최종 선정 문항

| 구성개념 | 문항내용 | 평균 | 표준편차 |
|------|--|------|------|
| 인간관 | 1.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려는 배려를 많이 하는 편이다. | 3.93 | .73 |
| | 2.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한다. | 4.02 | .67 |
| | 3. 나는 말과 행동에 잘못이 없는지를 살피곤 한다. | 3.94 | .73 |
| | 4. 나는 성공하기 전에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 3.97 | .78 |
| | 5.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의바르고 깃듯하게 행동한다. | 4.01 | .68 |
| | 6. 사람이려면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 4.27 | .68 |
| | 7.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갖추어야 한다. | 4.12 | .71 |
| | 8. 개인의 사적인 욕망을 버리고 인간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 3.83 | .75 |
| | 9.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언제나 신념에 따라 행동한다. | 3.47 | .84 |
| 부부관 | 1. 남자는 바깥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것이 옳다. | 2.41 | 1.10 |
| | 2. 가사와 자녀교육은 여자의 몫이다 | 2.25 | 1.02 |
| | 3. 가정의 중요한 사안은 가장이 결정해야 한다. | 2.98 | 1.08 |
| 장유관 | 1. 어른에게는 예의를 갖추어 행동해야 한다. | 4.40 | .61 |
| | 2. 어른을 공경하고 나이에 맞게 대접해 드려야 한다. | 4.29 | .68 |
| | 3.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서로 양보하고 상호간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 | 4.38 | .62 |
| 세계관 | 1. 사람의 성격이 다른 것은 하늘로부터 각기 다른 기운을 받았기 때문이다. | 2.62 | 1.01 |
| | 2. 나는 돌아가신 조상들의 영혼이 자손들을 내내 보살핀다고 믿는다. | 2.69 | 1.13 |
| | 3. 하늘아래 인간과 자연의 모든 것이 한 법칙 아래 놓여 있다. | 3.54 | .98 |
| | 4.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성품은 본래 선한 것이다. | 3.57 | .99 |
| | 5. 간편하게라도 조상에 대해 제사는 계속 지내야 한다. | 3.56 | 1.15 |
| | 6. 나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내 분수에 맞게 살려고 한다. | 3.03 | 1.09 |
| 부자관 | 1. 나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매사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 3.98 | .88 |
| | 2. 효도가 최고의 덕목이므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한다. | 3.91 | .83 |
| | 3. 나는 매사에 나 자신보다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고 산다. | 3.44 | .84 |
| 붕우관 | 1.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4.36 | .64 |
| | 2. 나는 친구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4.02 | .76 |
| | 3.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 끝까지 믿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 | 4.31 | .72 |

예상한 요인에 해당되면서 .40 이상의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을 보이고 내용 타당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상의 준거를 통해 최종적으로 인간관 9문항, 부부관 3문항, 장유관 3문항, 세계관 6문항, 부자관 3문항, 봉우관 3문항 등, 총 27문항이 선정되었다. 유교가치관 척도 예비문항에 대한 구조계수행렬(structure matrix)과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항은 표 4와 표 5에 제시하였다. 유교가치관 척도는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6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 유교사상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세계관은 천명론, 이기론/이일분수, 조상숭배/내세관의 세 개 하위영역을 예상하였으나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고, 인간관도 인격수양과 인의예지라는 두 개의 요인구조가 아닌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또한 사회관에서는 오류의 내용 중 4개의 가치관이 독립적인 요인으로 분류되었지만, 군신유의의 가치관으로 구성된 상하관계 문항은 문항선정 과정에서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지 않고 다른 요인들로 나뉘면서 결과적으로 모든 문항이 제외되었다. 6개의 요인이 지닌 총 설명변량은 58.72%이고, 전체 설명변량 중에서 제1요인(인간관)은 약 27.38%를, 제2요인(부부관)은 10.00%를, 3요인(장유관)은 6.11%를, 4요인(세계관)은 6.05%를, 5요인(부자관)은 5.13%를, 6요인(봉우관)은 4.0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교가치관 척도의 각 요인별 내적일치도는 .72에서 .85로 수용할만한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유교가치관 척도의 각 요인별 평균점수를 살펴본 결과 3요인 장유관($M=4.36$, $SD=.53$)과 6요인 봉우관($M=4.23$, $SD=.57$)이 4점 이상으로 매우 긍정적인 유교성향을 보였고, 1요인

인간관($M=3.95$, $SD=.50$)과 5요인 부자관($M=3.78$, $SD=.71$)도 중간수준 이상의 비교적 긍정적인 유교적 성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요인 세계관의 평균은 $3.17(SD=.71)$ 로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2요인 부부관은 전체 요인 중에서 평균이 3점 이하인 $2.55(SD=.87)$ 로 가장 낮아, 부부관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유교가치관

다음으로 유교가치관 척도와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연령, 학력, 지역, 종교)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6과 같다.

유교가치관과 각 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표 7과 같이 연령은 유교가치관 전체 뿐만 아니라 모든 하위요인과 $r=.27$ 에서 $r=.55$ 사이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유교적인 가치를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학력은 유교가치관 전체($r=.15$, $p<.01$)와 정적인 상관을 보여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유교적인 가치를 더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하위요인에 있어서는 봉우관($r=.17$, $p<.01$)과 인간관($r=.13$, $p<.01$)에서만 유의미한 상관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유교가치관의 각 하위요인들과 전체 점수 간에는 $r=.53$ 에서 $r=.72$ 사이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 각 하위요인들이 유교가치관을 구성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유교가치관 각 하위요인들 간에는 $r=.18$ 에서 $r=.53$ 사이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하지만 유독 부부관은 인간관, 장유관, 봉우관 등과의 상관이 낮았고, 학력과도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특성 | 구분 | 인원수 | 전체 |
|-------|------------------|-----|-----|
| 성별 | 남 | 150 | 300 |
| | 여 | 150 | |
| 연령 | 10대 | 50 | 300 |
| | 20대 | 50 | |
| | 30대 | 50 | |
| | 40대 | 50 | |
| | 50대 | 50 | |
| | 60대 | 50 | |
| 학력 | 초등학교 졸업 | 8 | 300 |
| | 중학교 졸업 | 30 | |
| | 고등학교 졸업 | 104 | |
| | 전문대 졸업 | 36 | |
| | 대학교 졸업 | 100 | |
| | 대학원 이상 | 22 | |
| 종교 | 종교 유 | 167 | 300 |
| | 종교 무 | 131 | |
| | 무응답 | 2 | |
| 현 거주지 | 대도시(서울 및 6대 광역시) | 193 | 300 |
| | 중소도시(시 단위 중소도시) | 77 | |
| | 읍면지역 | 30 | |
| 성장지역 | 대도시(서울 및 6대 광역시) | 176 | 300 |
| | 중소도시(시 단위 중소도시) | 77 | |
| | 읍면지역 | 47 | |

또한 성별에 따라 유교가치관 척도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 표 8과 같이 부부관($t=2.30, p<.05$), 세계관($t=2.06, p<.05$), 유교가치관 전체($t=2.23, p<.05$)에서 남녀 간의 평균 차이가 나타났고, 세 영역에서 모두 남성의 평균점수가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다음으로, 참여자들을 연령대별로 나누어 유교가치관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 표 9와 같이 유교가치관의 모든 영역에서 연령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10대부터 30대의 젊은층에 비해서 60대의 고령층이 유교가치관 수준에 있어서 더 높게 나타

표 7.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유교가치관 간의 상관관계 분석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1. 연령 | 1 | | | | | | | | |
| 2. 학력 | .30** | 1 | | | | | | | |
| 3. 인간관 | .27** | .13** | 1 | | | | | | |
| 4. 부부관 | .43** | .10 | .07 | 1 | | | | | |
| 5. 장유관 | .35** | .08 | .51** | .06 | 1 | | | | |
| 6. 세계관 | .35** | .05 | .36** | .27** | .35** | 1 | | | |
| 7. 부자관 | .32** | .09 | .46** | .18** | .43** | .39** | 1 | | |
| 8. 봉우관 | .36** | .17* | .53** | .11 | .51** | .25** | .38** | 1 | |
| 9. 유교가치관 전체 | .55** | .15** | .68** | .53** | .68** | .69** | .72** | .65** | 1 |

** $p < .01$

표 8. 성별에 따른 유교가치관 평균 차이

| | 전체(n=300) | | 남성(n=150) | | 여성(n=150) | | t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 인간관 | 3.95 | .50 | 3.97 | .50 | 3.94 | .41 | .50 |
| 부부관 | 2.55 | .87 | 2.66 | .84 | 2.43 | .88 | 2.30* |
| 장유관 | 4.36 | .53 | 4.39 | .51 | 4.32 | .54 | 1.10 |
| 세계관 | 3.17 | .71 | 3.25 | .68 | 3.08 | .73 | 2.06* |
| 부자관 | 3.78 | .71 | 3.84 | .73 | 3.70 | .68 | 1.65 |
| 봉우관 | 4.23 | .57 | 4.24 | .57 | 4.22 | .57 | .24 |
| 유교가치관 전체 | 3.67 | .42 | 3.72 | .42 | 3.62 | .41 | 2.23* |

* $p < .05$

났고, 이러한 경향은 부부관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부부관에서는 60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 부부유별의 문항들에 대해 평균 3점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특히 10대와 20대의 부부관 평균은 각각 1.99(.81), 2.15(.70)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인 반면,

60대는 3점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나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종교는 각 집단의 응답자 수를 고려하여 종교 유무로 나누어 유교가치관 척도의 평균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10과 같이 유교가치관 척도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종교가 있는

표 9. 연령대에 따른 유교가치관 평균 차이

| 연령대 | n | 인간관 | | F | 부부관 | | F | | |
|-----|-----|----------|------|----------|------|------|-----|----------|-----|
| | | 평균 | 표준편차 | | 평균 | 표준편차 | | | |
| 10대 | 50 | 3.76 | .51 | 5.66*** | a | 1.99 | .81 | a | |
| 20대 | 50 | 3.86 | .43 | | a | 2.15 | .70 | a | |
| 30대 | 50 | 3.84 | .47 | | a | 2.49 | .81 | ab | |
| 40대 | 50 | 4.00 | .44 | | ab | 2.71 | .82 | 14.28*** | bc |
| 50대 | 50 | 4.06 | .56 | | ab | 2.90 | .74 | bc | |
| 60대 | 50 | 4.19 | .44 | | b | 3.05 | .82 | c | |
| 전체 | 300 | 3.95 | .50 | | 2.55 | .87 | | | |
| 연령대 | n | 장유관 | | F | 세계관 | | F | | |
| | | 평균 | 표준편차 | | 평균 | 표준편차 | | | |
| 10대 | 50 | 4.20 | .58 | 8.61*** | ab | 2.84 | .77 | ab | |
| 20대 | 50 | 4.08 | .57 | | a | 2.82 | .56 | a | |
| 30대 | 50 | 4.28 | .48 | | ab | 3.21 | .75 | abc | |
| 40대 | 50 | 4.43 | .44 | | bc | 3.28 | .65 | 8.84*** | bc |
| 50대 | 50 | 4.52 | .48 | | bc | 3.39 | .62 | c | |
| 60대 | 50 | 4.63 | .41 | | c | 3.48 | .62 | c | |
| 전체 | 300 | 4.36 | .53 | | 3.17 | .71 | | | |
| 연령대 | n | 부자관 | | F | 붕우관 | | F | | |
| | | 평균 | 표준편차 | | 평균 | 표준편차 | | | |
| 10대 | 50 | 3.49 | .88 | 6.85*** | a | 3.99 | .63 | a | |
| 20대 | 50 | 3.60 | .65 | | ab | 4.09 | .62 | ab | |
| 30대 | 50 | 3.58 | .61 | | a | 4.00 | .50 | a | |
| 40대 | 50 | 3.87 | .65 | | abc | 4.32 | .49 | 9.95*** | abc |
| 50대 | 50 | 4.05 | .59 | | bc | 4.45 | .46 | bc | |
| 60대 | 50 | 4.07 | .65 | | c | 4.53 | .45 | c | |
| 전체 | 300 | 3.78 | .71 | | 4.23 | .57 | | | |
| 연령대 | n | 유교가치관 전체 | | F | | | | | |
| | | 평균 | 표준편차 | | | | | | |
| 10대 | 50 | 3.38 | .40 | 25.08*** | a | | | | |
| 20대 | 50 | 3.43 | .36 | | a | | | | |
| 30대 | 50 | 3.56 | .36 | | ab | | | | |
| 40대 | 50 | 3.77 | .34 | | bc | | | | |
| 50대 | 50 | 3.89 | .30 | | c | | | | |
| 60대 | 50 | 3.99 | .36 | | c | | | | |
| 전체 | 300 | 3.67 | .42 | | | | | | |

*** $p < .001$

표 10. 종교유무에 따른 유교가치관 평균 차이

| | 종교 유(n=167) | | 종교 무(n=131) | | t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 인간관 | 4.01 | .49 | 3.87 | .49 | 2.57* |
| 부부관 | 2.68 | .84 | 2.39 | .87 | 2.93** |
| 장유관 | 4.46 | .47 | 4.21 | .56 | 4.19*** |
| 세계관 | 3.26 | .74 | 3.04 | .65 | 2.70** |
| 부자관 | 3.88 | .69 | 3.63 | .71 | 3.07** |
| 붕우관 | 4.31 | .53 | 4.12 | .59 | 2.90** |
| 유교가치관 전체 | 3.77 | .40 | 3.54 | .41 | 4.75*** |

*** $p < .001$, ** $p < .01$, * $p < .05$

주. 종교 유: 기독교(73), 불교(66), 천주교(25), 유교(3)

종교 무: 무교(131)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유교적인 가치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본 연구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전통적 가치의 존속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던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지역(현 거주지역, 주요 성장지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전통 유교사상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유교가치관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그 척도를 사용하여 한국인에게 내면화된 유교가치관을 측정해 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자들은 본 연구를 통해 유교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함으로써 한국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도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척도개발 과정에서 확인된 결과에 따르면, 유교가치관은 구시대 유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한국인의 내면에 살아 숨 쉬고 있으며, 세계관, 인간관, 부자관, 장유관, 붕우관, 부부관의 요인 구조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유교가치관이 현재에 살아 숨 쉬는 심리적 실체라고 한다면 본 척도에 의해 측정되는 유교가치관이 한국인들의 심리와 정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자면, 유교가치관 척도는 6개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총 27문항이 선정되었다. 6개 요인을 구체적으로 보면, 세계관과 인간관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각각 하나의 요인으로, 이론적으로 사회관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부부관, 장유관, 부자관, 붕우관의 네 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각 요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계관은 세계가 정해진 법칙에 의해서 운행된다는 생각, 인간의 착한 본성이 하늘로부터 부여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조상과 제사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세계관은 세상에 대한 유교의 고유한 인식체계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생성원리에 대한 추론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인간관은 주로 인간의 도리, 그리고 인격을 갖추기 위한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는 인간으로서 옳고 그름을 알고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 등을 인간의 도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예의, 마음을 갈고 닦는 인격수양,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유교가치관에 있어서 인간관의 구조적인 의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요인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러 요인에 대한 부하량이 동시에 높은 문항들은 주로 인간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인간관은 개인적인 행위규범 또는 인격수양에 관계된 것으로서, 대인관계 규범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관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인식수준에서는 인간관과 사회관이 구분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유교사상을 이루는 하나의 큰 범주인 사회관은 본 연구에서 네 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는데, 남녀와 부부 사이의 사회적 역할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부관, 부모와 자녀사이의 친밀한 사랑, 즉 자애와 효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부자관, 친구 관계에서의 신뢰와 존중하는 마음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붕우관, 연령에 따른 사회적 서열 관계에서의 공경의 마음과 예절을 그 내용으로 하는 장유관이 각각 사회관의 하위요인을 구성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대인관계 유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규범을 뚜렷하게 구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유교가치관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상에서 설명된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유교가치관 전체와 각 하위요인들 간에는 예상한 대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유교가치관의 각 하위요인들 간에도 대체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지만, 유독 부부관은 인간관, 장유관, 붕우관 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오늘날 유교가치관에 있어서 부부관이 갖는 특수한 지위로 볼 수 있는데, 인간관, 장유관, 붕우관 등의 하위요인들이 여전히 우리사회의 건전한 가치로서 인정받아 그 수준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데 반해, 부부관은 남녀 간의 불평등한 역할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다른 하위요인들과는 동떨어져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들은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재호, 장영수(1992)의 논문에서는 친애, 자기수양, 성실, 성취, 효, 인화 등의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고, 20대부터 60대까지를 대상으로 한 한덕웅(2004a)의 연구에서도 가족과 부모에 대한 존경과 같은 유교적인 요소들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수양과 가족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문항을 행동수준에서 측정함으로써 실제로 유교적 행위가 얼마나 행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집단별 유교가치관 수준의 차이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성별, 연령대에 따라서 유교가치관 전체 혹은 하위요인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남성이, 그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유교가치관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유교가치관의 변화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낮은 연령대일수록 유교가치관의 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사회의 유교가치관 수준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부관계 있어서 이러한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부부관계에 대한 가치관이 가장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종교유무에 따른 유교가치관 수준의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유교를 포함하여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유교가치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유교가 단순히 종교를 넘어서는 한국인의 보편가치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한국인들은 종교에 관계없이 유교가치관을 대인관계 규범이자 생활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거나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의 바탕에는 유교적 가치관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현재 한국인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유교가치관은 전통 유교사상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인식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 유교가치관의 변화 가능성이다. 전통적인 유교가치관은 천명론을 기초로 이기론적 세계관, 그리고 인격수양과 인의예지를 중시하는 인간관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사회적 규범

으로 도출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유교가치관은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부합하는 가치들은 유지되고,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은 사라져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변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세계관, 인간관, 사회관이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유교의 사상체계가 실제 심리적인 구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유교사상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완결된 학문적인 분류 체계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실제 심리적인 구조를 반영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두 가지 중 어떤 설명이 더 타당한지는 추후연구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오늘날의 유교가치관은 첫 번째 논리대로 현대적인 상황에 맞게 어느 정도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관이나 인간관 같이 추상적인 추론에 의해서 도출된 사상들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도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 가령 전통적인 유교사상에서는 세계관이 천명론, 이기론, 조상숭배 등과 같은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 이 세 가지 내용들은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되어 나타났다. 반면 여전히 대인관계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틀인 부자관계, 부부관계, 봉우관계, 장유관계 등은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 한국인들이 세계관이나 인간관의 영역에 해당하는 전통 유교가치관의 내용을 세밀히 구분하여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의미를 상실해 가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현재 한국인의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세계관이나 인간관이 유학자들이 이해하는 유교가치관의 내용처럼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전통 유교가치관이 지배하였던 시대에는 천명론이나 이기론과 같은 유교적 세계관이 그대로 유지되었을 수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유교적 세계관이 이성과 합리주의를 중시하는 서구의 과학적 세계관으로 대체되었고, 인간관의 경우에는 서구적인 자기(self)관과 같은 개인주의적 가치들이 유입됨으로써 많이 변화하였다. 반면 사회관은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관계의 대상에 따라 여러 개의 요인으로 분류되고 있었는데, 이는 현실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학습되는 과정을 통해서 관계중심적인 또는 상호 협조적인 인간관이 생활 규범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인의 유교가치관에 관한 본 연구의 의의를 몇 가지 찾는다면, 첫째, 본 연구는 유교가치관에 대한 평가를 위한 선행작업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유교의 존재에 대한 시각이 대립하고 있고(찬성: 이언호, 1999; 최병철, 1999; 함재봉, 2000, 반대: 김경일, 2001), 종교적 차원이 아닌 문화적 차원에서 유교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유교가치관이 한국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실체라고 한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유교가치관 척도를 이용하여 앞으로는 특정 대상에 대한 유교가치관을 측정하고,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참고로 그동안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가치 연구들의 측정방식을 몇 가지로 분류해 본다면, 가치들의 중요도(Schwartz & Bilsky, 1987; 차재호, 장영수, 1992; 한덕웅, 2004b)를 재는 방식, 가치에 대한 선호도(Rokeach, 1973; 한덕웅, 이경성, 2003)를 재는 방식, 가치관단을 내

포함 문항들에 대한 동의수준(Hofstede & Bond, 1991; Triandis, 1979; 나은영, 차재호, 1999)을 측정하는 방식 등이 있다. 본 연구의 척도는 세 번째 측정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유교가치관과 관련된 신념, 태도, 행동의도 등 다양한 측면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요도나 선호도 평가를 하는 방식에 비해서 응답자의 실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둘째, 세계관이나 인간관을 비롯하여 대인관계에 대한 관념인 사회관의 구조와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유교적 가치관이 행동원리로서 유지되고 있으며, 유교가치관이 공동체적 가치관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덕웅(2002)의 기존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유학심리학에서 개인 심리학적 요소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념과 행동 규범을 고려하는 사회심리학적 요소를 발견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하겠다. 유교가치관이 현대 사회에 제시하는 시사점이 있거나 적응력을 가진다면, 앞으로 한국 사회의 신뢰 정립, 공동체 윤리의 회복과 행동규범의 정립을 통해 개인 간 또는 가족 내 세대 간 갈등의 해소에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유교가치관을 다양한 심리학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운과 한성열(1998)은 기존 한국의 심리학연구가 한국 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없이 서구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점을 비판하면서 심리학적 방법론(psychological methodology)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반성에 힘입어 최근 상담심리학계 내에서 한국형 상담모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커져가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온마음 상담(윤호균, 2007), 현실역동

상담(장성숙, 2010)을 들 수 있다. 그런데 한국형 상담모형이 나오기 위해서는 상담 장면에서 도출된 한국형 상담 이론의 요소도 중요하지만, 한국 문화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거시적 분석을 거친 내용 요소도 중시해야 제대로 된 이론적 틀을 구비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한 한국의 유교가치관이 한국인의 심리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한국형 상담모형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하나의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가치관보다 행동에 더 밀착된 유교 태도 척도개발이라든지, 더 나아가 유교가치관 연구를 토대로 한국인의 정서와 감정의 뿌리에 유교가 미친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 한국인의 주요 긍정적 정서(primary positive emotion)와 부정적 정서(primary negative emotion)에 관한 연구(박인조, 민경환, 2005; 한덕웅, 강혜자, 2000) 등 상담 장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연구를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설문대상의 대표성에 관한 제한점이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 등을 고려할 때 그들이 이러한 사상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한 만큼 5, 60대 응답자들의 경우에도 새로운 사상이나 도구에 익숙한 인물들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의 유교가치관은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비교적 현대적인 가치관에 익숙한 사람들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라는 모집단을 고려하였을 때 표본의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일부문항의 표현에 있어서의 제한점이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문항들 중에는 한 문항 내에 두 가지 내용이 동시에 들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려는 / 배려를 많이 하는 편이다.”, “개인의 사적인 욕망을 버리고 / 인간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와 같은 문항들이다. 이런 문항들은 인지와 행동적인 요소로 구분해 볼 수 있거나, 유사하지만 다른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한 문항이 될 수 있다. 이런 문항들의 경우 응답자의 해석이 불분명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 내용에 대한 반응이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이 어느 쪽에 관한 것인지 불확실하다. 하지만, 이러한 몇 가지 문항들은 동일한 유교가치관에서 도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최종문항에 포함시켰다.

셋째, 척도의 타당성에 관한 제한점이다. 문헌조사를 기초로 기존의 유교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내용의 타당성을 의심할 여지는 별로 없지만, 본 연구에서의 문항 구성이 전통적인 이론에 바탕을 둔만큼 유교가치관에서 기원했지만 현대적 가치관으로 변화된 유교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조사에 앞서 실시된 예비조사를 통해서 문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쉽게 풀어서 사용하고, 현대적인 가치에 맞지 않는 문항들은 제거하는 형태로 척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본래 유교사상은 부자관, 부부

관, 장유관, 봉우관과 같이 오류에 나타나는 양자관계(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윗사람과 아랫사람, 친구 간)에서 양측의 호혜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본 척도에서는 이러한 점이 잘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즉, 상호적인 관계에 대한 규정이라는 측면이 다소 간과된 경향이 있다. 하지만, 상호적인 관계질서를 표현한 문항들,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사랑과 공경이 있어야 한다.”는 문항들은 요인분석에서 대거 탈락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 한국사회에서의 사회관이 상호적인 규범으로 인식되고 있기보다는 대인관계의 성격을 규정하고 일방적인 서열관계에 적용되는 규범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부자관의 경우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사랑과 공경이 있어야 한다(요인분석에서 제거됨)”는 상호적인 규범보다는 “나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매사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일방적 규범의 형태로 부자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의 부부관은 주로 부부사이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문항으로 만든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본래 의미의 부부유별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은 부부간에 분별이 있어, 가정에서의 역할이 서로 다르다고 해석하여야 하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내용의 문항(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는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은 요인분석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아, 유교적 부부관이 남녀에 따른 고정관념의 형태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했을 때 몇 가지 추후연구들을 통해서 본 연구가 보완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본 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본 연구는

척도개발의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유교가치관 척도로서 타당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성별이나 연령대별 비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유교가치관의 내용구성이 타당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라든지, 기존에 국내외에서 개발된 유교가치관을 측정하는 도구들, 또는 유교적인 가치와 관련된 변인들을 동시에 측정하여 타당도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유교가치관 척도를 활용하여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서구적인 사상과 유교적 가치관의 공존에 관한 것이다.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이중적 가치이다. 오늘날 서구가치관과 전통적 유교가치관의 혼재를 가정할 때, 유교가치관 척도의 개발은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현대 한국인의 가치관 구조, 즉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혼재를 확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개인 내적으로 대립적인 가치가 어떻게 혼재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가치혼재가 세대 간에는 어떤 관점의 차이와 갈등을 야기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본 척도의 타당화 연구의 일환으로 개인주의와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 구체적인 연구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둘째로 집단적 차원에서 타인과의 갈등이다. 가치관의 차이는 타인과의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Yang, 1999).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갈등은 장유관계, 부자관계, 부부관계, 봉우관계에서 상호간의 역할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세대갈등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인의 마음과 행동에 내재된 유교가치관을 분석하여 한국 사회의 사회적 갈등 해소 및 통합을 위한 하나의 해답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유교적인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의 교류와 동시에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삼국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나 예측을 하기 위한 변인으로서 유교가치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중국이나 일본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유교가치관이 유교문화권의 보편심리학(최상진, 한규석, 1998)으로서 실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상을 동아시아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재연 (2001). 선비의 나라 한국유학 2천년. 서울: 한길사.
- 고병익 (1996). 동아시아의 전통과 변용.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금장태 (1982). 한국유교의 재조명. 서울: 전망사.
- 금장태 (2005). 한국 유가철학의 과제와 전망, 한국유학사상대계Ⅱ 哲學思想編 上. 서울: 한국국학진흥원.
- 금장태 (2007). 유학사상의 이해.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 김경동 (1964). 태도척도에 의한 유교가치관의 측정. 한국사회학회지: 한국사회학, 1(1), 3-20.
- 김경동 (2004).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의식(상): 변화의 경험적 추적.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 김경일 (2001).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서울: 바다출판사.
- 김의철 (2000). 토착심리학과 문화심리학의 과학적 토대. 한국심리학회 사회문제연구학회 심포지움, 15-34.
- 김의철 (2006). 한국인의 자기 인식에 나타난 토착문화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4), 1-36.
- 김성태 (1976). 성숙인격론.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김성태 (1978). 경 개념의 심리학적 접근. 한국사상, 16, 22-42.
- 김정운, 한성열 (1998). 문화심리학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1), 97-114.
- 김충열 (1984). 중국철학사 서설.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1(1), 9-45.
- 김충열 (1991). 중국 철학의 이해. 서울: 외계.
- 김충열 (2009). 유가윤리강의. 서울: 예문서원.
- 김태길 (2001). 유교적 전통과 현대 한국. 서울: 철학과 현실사.
- 나은영, 차재호 (1999). 1970년대와 1990년대 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37-60.
- 나은영, 차유리 (2010).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 1979 1998 2010년의 조사결과 비교.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24(4), 63-92.
- 대동문화연구원 (1965, 1994). 경서(經書):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서울: 성균관대학교.
- 박인조, 민경환 (2005). 한국어 감정단어의 목

- 룩작성과 차원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09-129.
- 신수진 (1998).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2), 127-152.
- 신수진, 최준식 (2002). 현대 한국사회의 이중가치체계. 서울: 집문당.
- 유승국 (1976). 한국의 유교.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유승국 (1988). 한국사상과 현대. 동방학술연구원.
- 윤사순 (1997). 한국 유학 사상사론. 서울: 예문서원.
- 윤사순 (2006). 유학의 현대적 가용성 탐구. 서울: (주)나남출판.
- 윤호균 (2007). 한국적 상담 모형: 온마음 상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505-522.
- 이누미야 요시유키 (2005). 청년기의 생명윤리와 사생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85-108.
- 이수원 (1997). 동양 심리학의 모색: 중용의 심리학적 탐구.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자료집, 107-129.
- 이언호 (1999). 공자를 알아야 나라가 산다. 서울: 큰방.
- 임능빈 (1984). 性理學의 心理學的 一考察. 심리학의 연구문제, 1, 71-93.
- 임능빈 (1995). 동양사상과 심리학. 서울: 성원사.
- 장성숙 (2010). 상담자의 어른역할이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야기 방식”에 기초한 보고 형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6(3), 311-329.
- 정양은 (1970). 감정론의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3), 77-90.
- 정양은 (1976). 심리구조이론의 동서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 68-79.
- 조공호 (1990).孟子에 나타난 心理學的 含意 (I): 人性論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59-81.
- 조공호 (1997). 순자에 나타난 심리학적 함의 (3).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1-27.
- 조공호 (2003). 한국인 이해의 개념틀. 서울: 나남신서.
- 조공호 (2007). 동아시아 집단주의와 유학사상: 그 관련성의 심리학적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21-54.
- 차재호 (1994). 지난 100년간에 일어난 한국인의 가치, 신념, 태도 및 행동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2), 123-136.
- 차재호, 장영수 (1992). 한국 대학생들의 중요한 가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2), 123-136.
- 차재호, 정지원 (1993).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집합주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50-163.
- 최병철 (1999).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서울: 시아출판사.
- 최상진 (1999). 한국인의 마음. 최상진, 윤호균, 한덕웅, 조공호, 이수원 (공저). 동양심리학: 서구심리학에 대한 대안모색, pp.377-479. 서울: 지식산업사.
- 최상진 (2011). 한국인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최준식 (2000). 한국인에게 문화가 없다고? 서울: 세계철출판사.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04). 韓國人의 宗教와 宗教意識: 제4차 비교조사. 서울: 한국갤럽.
-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연구실 (2005). 한국유학사

- 상대계Ⅱ. 서울: 예문서원.
- 한국사상사연구회 (2006). *조선 유학의 개념들*. 서울: 예문서원.
-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한덕웅 (1994). *퇴계 심리학: 성격 및 사회 심리학적 접근*.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한덕웅 (1996). 특집 퇴계 심학의 실증적 연구 방향 모색. *퇴계학연구원: 退溪學報*, 89(1), 44-62.
- 한덕웅 (1997). 한국 유학의 심리학적 기초와 현대 심리학적 의의: 퇴계 율곡과 다산의 심리학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6(1), 40-79.
- 한덕웅 (2001a). 한국 유학의 4단7정 정서설에 관한 심리학적 실증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1), 1-40.
- 한덕웅 (2001b). 한국의 유교문화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비판적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2), 449-479.
- 한덕웅 (2002). 한국문화는 유교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254-260.
- 한덕웅 (2003). 한국인들이 인식하는 한국문화의 기본 구조.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365-367.
- 한덕웅 (2004a). 한국문화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흐름과 과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173-174.
- 한덕웅 (2004b). 한국인의 중요한 가치.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183-184.
- 한덕웅, 강혜자 (2000). 한국어 정서단어들의 적절성과 경험빈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9(2), 63-99.
- 한덕웅, 이경성 (2003). 한국인의 인생관으로 본 가치관: 30년간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 49-67.
- 함재봉 (2000). *유교·자본주의·민주주의*. 서울: 전통과 현대.
- 현상윤 (1949, 1960). *조선유학사*. 서울: 민중서관.
- 현상윤 (2008). *기당 현상윤전집 1. 원전 조선유학사*. 서울: 나남
- Bell, D. A. (2000). Asian Communitarianism. The Current state of Confucian Studies: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Asian Values Debate. 함재봉, 함재학, 데이빗 홀 (편). *유교민주주의, 왜 & 어떻게* (pp.15-24). 서울: 전통과 현대.
- Bond M. H. (2008). Role of emotions and behavioral responses in mediating the impact of face loss on relationship deterioration: Are Chinese more face sensitive than American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2), 175-184.
- Choi, S. C., & Han Gyuseog (2000). Korea. In A. E. Kazdin (Ed.), *Encyclopedia of psychology*, 8, (pp.456-45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 Langness, L. L. (1982). *The Study of Culture*. San Francisco: Chandler & Sharp.
- Hofstede, G. (1980). Culture and Organizations. *International Studies of Management & Organization*. 10(4), 15-41.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Hill.
- Hofstede, G., & Bond, M. H. (1991). The Confucius Connection From cultural roots to

- economic growth. *Organizational Dynamics*, Spring, 5-21.
- Kitagawa, J. M. (1968). *Religions of the East*.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 Koh, B. (1996). Confucianism in Contemporary Korea. In W. Tu (Ed.), *Confucian tradition in East Asian modernity* (pp.191-201).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Nisbett, R. E. (2003). *The geography of thought: How Asians and Westerners think differently and why*. New York: Free Press.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Y: The Free Press.
- Schwartz, S. H., & Bilsky, W. (1987). Toward a universal psychological structure of human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3), 550-562.
- The Chinese Culture Connection (1987). Chinese values and the search for culture-free dimension of cultur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8, 143-164.
- Triandis, H. C. (1979). Values, attitudes, and interpersonal behavior.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27, 195-259.
- Tu, W. (1985). Selfhood and otherness in Confucian thought. In A. J. Marsella, G. DeVos, & Francis L. K. Hsu (Eds.), *Culture and self: Asian and Western Perspectives* (pp. 231-251). New York: Tavistock.
- Yang, J. (1999). Confucianism, institutional change and value conflict in Korea.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26(1), 209-236.
- Yao, X. (2000). *An introduction to Confucian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 차원고접수 : 2011. 3. 30.
수정원고접수 : 2012. 4. 2.
최종게재결정 : 2012. 6. 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nfucian Values Scale

Kyungsub Shim¹⁾

Yoshiyuki Inumiya²⁾

Sangyeon Yoon¹⁾

Shinhwa Suh¹⁾

Yang Zhang¹⁾

Seongyeul Han¹⁾

¹⁾Korea University

²⁾Seojeong Colleg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iscover, using the framework of traditional Confucian ideas, what structures of Confucian values remain in the thoughts and actions of Koreans, and to develop a tool for measuring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a scale, first, the traditional Confucian values system wa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world view, perspective on human beings, and perspective on society)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in order to select the questions to ask. Second, existing empirical analyses were referenced to produce 77 questions on Confucian thoughts and actions that the researchers themselves experienced in real life, and a preliminary study was carried out. Third, based on the results of that study, the questions were revised and some were eliminated to produce 54 pilot questions on Confucian values for this study. Using a professional survey company,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300 subjects from teenagers to people in their 60's. The analysis results of the collected data show that, out of the three theoretical categories, "world view" and "perspective on human beings" each had one factor that was significant, while there were four such factors for "perspective on society" in the sub-categories of virtues between "husband and wife", "old and young", "friends", and "parents and children". Of these factors, "virtues between old and young" had the highest average score, followed in ranking by "virtues between friends", "perspective on human beings", "virtue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world view", and "virtues between husband and wife."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levels of Confucian values according to gender and age group show that, with gend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respect to Confucian values in general, world view and virtues between husband and wife, while with age group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respect to Confucian values in general and all the sub-category factors. These results reveal that many Confucian values still continue to exist within the minds of Koreans but the level of those values differ for different factors, especially with respect to gender and age group. The differences can be viewed as an indicator reflecting the westernization of Koreans and the generation gap in Korean society. In the discussion section,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ideas for further future research were presented.

Key words : Confucianism, Confucian values, world view, perspective on human beings, perspective on society, scale development